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 고찰

조문정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I 서론
- II 정치체제
- III 정당
- IV 장기집권
- 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키르기스스탄은 ‘민주주의의 섬’이라고 불리는 중앙아시아 유일 민주국가이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인 개혁 초기부터 민주주의의 도입, 의회중심제 체제, WTO가입 등의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자원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지리적 환경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활용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위로는 카자흐스탄, 동으로는 중국, 아래로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내륙 국가이다. 수도는 비슈켈으로 수도의 인구는 80만 명이다. 전체 인구는 560만 명(2012년 기준)이다. 면적은 198,500km²로 한반도의 0.95배의 크기이다. 주요 민족은 70%의 키르기스인이 주요민족이며 우즈베크인이 14.5%, 러시아인이 8.4%, 위구르인이 1%이다.

1993년 5월 헌법을 채택하고 Kyrgyz Republic 개명하였고, 1994년 1월 대통령 신임투표로 아카예프가 96.2% 획득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1994년 10월 양원제설립 골자 개헌하고 1995년 12월 대통령선거로 아카예프가 재선한다. 2000년 10월 대통령선거로 아카예프는 3선을 하고 2002년 3월~9월 Aksy 대중소요가 발생함으로 바키예프 내각이 사퇴하게 된다. 2005년 3월 총선 부정선거 이후 대중의 소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튜립혁명이다. 이 혁명으로 인해 2005년 4월 아카예프대통령은 실각하고, 바키예프 대통령이 과도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2005년 7월 바키예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6년 11월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헌법을 개정한다. 2007년 1월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하게 되고 2007년 1월 개정 헌법위헌 결정하면서 2003년 아카예프 당시 헌법으로 회기하게 된다. 2007년 12월 신헌법에 따라 총선을 실시하여, 바키예프 대통령 신정부 출범한다. 2010년 4월 비슈켈에서 반정부 시위인 2차 혁명이 일어나고, 바키예프는 실각하게 된다. 바키예프 정권 당시, 튜립혁명의 의도인 대통령에 비해 의회와 사법부의 권한 강화, 권력분산 통해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반대로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 더 강화되어 민주주의의 역행하게 된다. 민주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대통령이 또 다

른 반정부 시위로 물러나는 아이러니를 보이는 것이다. 바키예프가 축출되고, 오투바예바 과도 정부가 출범하는데 2차 재민주화로 보여지는 의원내각제, 새헌법개정을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아탐바예바가 야당 지도자 출신으로 중앙아시아 최초로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정권은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연립정당의 불안이 지속되며 민주주의 고착화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요소들 정치체제, 정당과 선거, 정권요인들을 분석하여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를 고찰 및 전망하고자 한다.

II 정치체제

키르기스스탄은 총 세 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독립 이후 1993년 첫 헌법 개정과 툴립혁명 이후인 2007년, 2차 혁명 이후인 2010년의 경우가 그러하다. 세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체제이다.

먼저 행정부로, 대통령의 권한을 신헌법상에서 보고자 한다.

60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를 대표

61조 총리를 자명할 권리

이것은 의회 권력의 지시 아래 매우 제한적 조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64조 대법원판사, 검찰총장, 중앙은행 총장을 임명할 권리로 의회의 감독과

제한 하에서의 권리이다.

68조 대통령 유고시 국회 의장이 1순위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총리는 2순위.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새 선거가 시행되어야 함

84조 행정권력으로서의 주요 권한, 총리임명. 사실상의 총리선출은

의회에서 이루어진다. 대법관 지명권한 또한 의회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지방법원 판사 임명조차 ‘판사평의회’의 지명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는 연립정부로 2010년에는 친과도정부정당인 사민당, 아타메켄(조국)당이 의원내각제 지지했고, 반과도정부정당인 아타주르트, 아르남이스(준엄)당은 대통령제 지지하였다. 2012년, 아타메켄, 아르남이스 탈퇴선언으로 자동 해산하였고 2012년 9월 사회민주당, 아르남이스(준엄)당, 아타메켄(조국)당 3개정당이 새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였다.

입법부는, 2005년 의회선거 후엔 5년의 임기로, 의석은 75석이었다. 이후 2007년 10월엔 90석, 2010년 10월엔 120석으로 변경하여 현재의 의석수이다. 2010년 10월 10일 당시의 의석수 비율을 살펴보면, 아타주르트당은 8.47%로 28석, 사회민주당은 7.83%로 26석, 아르남이스는 7.57%로 25석, 레스푸블리카는 6.93%로 23석, 아타메켄이 5.49%로 18석이었다. 헌법에 명기된 입법부는 아래와 같다.

70조 국회의원 120명, 임기: 5년, 정당명부식 투표제도를 통해 의석 배분, 한 정당은 120석의 의회 의석 중 최대 65석까지만 허용

74조 헌법수정안 제안, 법안 가결, 국가예산 승인. 국민투표시행 관련 법안 의결, 대통령 선거 결정

81조 대통령이 14일 이내로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의회 의장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

사법부는 1990년 12월 5일,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최고회의 주권을 선언하였고 1990년 12월 14일 헌법 재판소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 5월 5일 헌법 처음 제정하였고 1993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제정하였다.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각 1인 및 재판관 7인으로 총 9인 구성하고 있으며 재판관 임기 15년이다. 권한은 법률 및 법규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하고 헌법의 효력을 적용하고, 해석 관련한 분쟁 해결한다. 또 헌법개정안 발의하는 권한을 지닌다.

III 정당

2007년 10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12월 총선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치러졌으며,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전국 총계 5% 이상의 득표를 해야한다.¹⁾ 광역 행정구역인 6개 지역들(바트켄주, 추이주, 잘랄아바드주, 나린주, 탈라스주, 이식쿨주)과 2개의 주요 도시들(비쉬켄, 오쉬)에서 반드시 0.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2007년 선거와 2010년 선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Parties	%	Seats
Ak Jol	61.7	71
Ata Meken	11.3	0
SDPK	9.3	11
Turan	7.0	8
Others	10.7	-

그림 1. 2007년 선거 결과

1) 강봉구.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제도 선택” 『제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2007년 선거에서 바키예프 정권은 친대통령 선거 연합 약졸(Ak-Jol)이 총선에서 61.7% 득표로 당시 90석중 71석을 차지하였다. 11.3% 득표한 제1야당 아타메켄이 오쉬 시에서 0.5%의 지역득표장벽을 넘지 못하여 개정선거법에 따라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60%를 조금 넘게 득표한 약졸이 약 80%의 의석을 차지하여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결과 초래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야당 세력은 의회 선거에 항의, 두 개의 의회권력이 존재하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야당세력은 때때로 전국적인 연합집회를 조직하곤 했지만, 만성적 정치 불안에 지친 시민들의 호응 저조하였다.

2010년 선거에서 역시 의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각 정당은 전국적으로 최소 5%를 득표해야 하며 각 지역별(총 7개의 주와 비슈켄, 오쉬)로 0.5% 이상의 득표를 해야했고 상기 조건을 만족한 정당에 한해 각 정당이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120 의석이 배분되었다.

그림 2. 2010년 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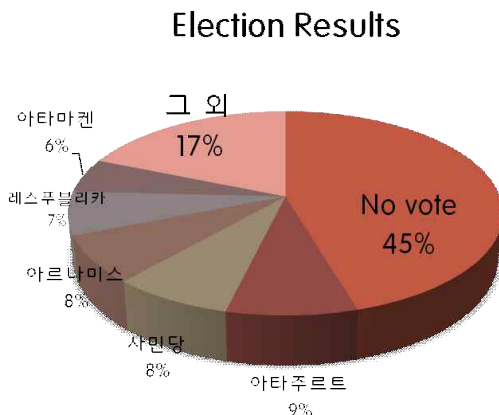


그림 3. 2010년 정당별 의석

Parties	Votes	% of votes cast	% by eligible voters	Seats
Ata-Zhurt	266,923	16.10%	8.89%	28
SDPK	241,528	14.55%	8.04%	26
Ar-Namys	232,682	14.02%	7.74%	25
Respublika Party of Kyrgyzstan	217,601	13.12%	7.24%	23
Ata-Meken	168,218	10.13%	5.60%	18
Butun Kyrgyzstan	145,455	8.76%	4.84%	—
Akshumkar	78,952	4.76%	2.63%	—
Zamandash	63,435	3.82%	2.11%	—
Other Parties	244,703	14.74%	7.77%	—
Not voting/casting invalid vote			45.14% (not needed)	—
Total		100.00%	100.00%	120
Turnout: 1,679,538 (55.90%)				

정당별로 조금 더 알아보자면, 1993년 설립한 사회민주당의 현 당수는 알마즈베크 아탐바예바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띠고 있으며 현 의석수는 120석 가운데 26석이다. 1993년 압두가니 에르케바예프에 의해 설립되었고 1999년 아탐바예프로 당수 교체되었다. 1993년 창당되었지만 실제로 1994년 12월에 정당 등록하였다. 2004년 ‘공정선거연합’에 일원이 되어 당시 멜리스 에셉카노프가 이끈 가장 큰 정당인 EI 당과 합병하여, 2005년 의회 선거 준비했으며 툄립혁명을 주도한 실질적 여당으로 과도정부의 핵심축이다. 의원내각제 지지하고, 혁명 이전부터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친러시아적 성향을 보인다. 당수인 알마즈베크 아탐바예바는 2000년 대통령 선거

출마하였고 2005 & 2006 산업, 무역, 관광부의 장이었으나 바키예프의 부패와 개혁억압을 비난하며 2006년 사임하였다. 바키예프의 야당포용공약의 일환으로 2007년 총리직 수행했으나 같은 해 또 다시 바키예프의 씨족주의와 부패로 사임됐다. 바키예프 대통령 축출후 과도정부 대통령 오투바예바가 아탐바예바를 임시총리와 경제부장관으로 지명하고, 2010년엔 부총리로 당선된 바 있다. 2011년 10월 대통령선거에서 60% 득표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안정이 없이는 키르기스스탄에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관세동맹을 주도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적 관계 지향하며 러시아와 주변국가와의 “공동의 미래”를 지칭한 것이었다. 주요 지지기반은 친러시아적인 북키르기스스탄이다.

아타메켄은 1999년 창당되었고, 이념은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이다. 오무르벡 테케바예프가 당수인 아타메켄의 현 의석수는 120석 가운데 18석이다. 의회주의와 경제개혁을 추구하였고, 다양한 사회 섹터와 정부기관 사이의 타협을 주고하고 있다. 오무르벡 테케바예프는 2000년 대통령선거 출마하여 14% 득표했고, 2005년 아카예프 축출하고, 새의회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06년 바키예프 임기 시, 개혁당 창당, 바키예프의 비평활동가였으며 오투바예바 대통령 시기에 헌법개혁 담당부처에 임명되었다. 극심한 반대파와 열렬한 지지파 공존하며 다섯 정당 중 가장 작은 정당의 당수로 활동하고 있다.

공산당은 1999년 창당,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2000명의 멤버가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큰 당중 하나이다. 사회민주주의, 다원적 정치 체제와 시장 경제를 허용하고 에너지와 같은 공공자산의 민영화에 강하게 반대한다. 2010년, 마마네이토바는 정부전복을 시도하는 등, 무질서 유발하여 기소되었다. 그의 억류로 의회 선거 활동 할 수 없어서 의석을 얻는데 실패했다.

아타주르트는 2004년 설립되었고 전 대통령인 바키예프 휘하의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여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실질적 여당인 사회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반혁명 정당으로 친러 성향을 보이며 강력한 대통령제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당수 캅치벡 타쉬예프는 바키예프 전 정권에서 비상부 장관을 역임했고 바키예프 정권이 무너짐으로 유력한 야당 지도자로 등장했다.

아르나미스당은 2005년 제1차 혁명 당시 북부지역을 대표한 펠릭스 쿨로프가 이끄는 당으로 현재 남과 북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제로 정치체제 환원을 주장하며 선거 중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당수인 펠릭스 쿨로프는 아카예프 전 대통령 통치하에 정부의 여러 직책 역임했다. 2000년, 공적 지위(국가통화 감독관) 남용 혐의로 체포되어 2005년 톨립혁명당시까지 투옥되었다.

레스푸블리카당은 2010년 창당했고 현 당수는 오무르벡 바바노프이다.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 문제에 집중한다. 사회민주당 출신의 당대표 때문에 범여권으로 분류할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당 대표가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개인사업을 벌이고 있어 친러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석수는 120석 중 25석이다.

아크숨카당은 2010년 선거에서 2.6% 득표로 의회진출에 실패했다. “민주세력연합”으로 2005년도 설립되었고 당수 테미르 사리에브는 2009년 대통령선거출마하여 당시 득표율 7%을 기록했다. 당의 방향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기 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한다.

부튼 키르기스스탄은 남부 키르기스스탄의 지지를 받으며 2010년 선거시 4.8% 득표했다. 부튼의 재검표로 총선 결과 발표를 3주 미루었다. 당수 아다칸 마두마노프는 바키예프 시기, 국가 안전보장위원회 의장이었다. 아다칸 마두마노프는 신문사와 TV등 미디어매체 경력으로 시작하였고 젊은 미디어 해설가로 탁월한 달변가였다. 키르기스스탄 첫번째 대통령인 아카예프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바키예프 대통령 시기, 국무장관 역임한 이후 의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바키예프 정권의 야당으로 바키예프 축출 이후 창당하게 되었다. “강력한 법”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지지세력은 남키르기스스탄이다.

IV 장기집권

키르기스스탄은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으나 독립 후 첫 정권인 아카예프 정권은 14년 6개월간의 장기집권을 하였는데, 이후 바키예프 정권에도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독재주의 노선을 걷는 행보를 보였다. 이와 같이 키르기스스탄은 민주주의와 독재주의와 같은 정권유지의 이중성이 혼재되어 있다.

아카예프 정권은 1990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4년 6개월의 장기간 정권을 잡았다. ‘민주주의의 섬’으로 불리기까지 했지만,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소수 민족의 대표성을 거부하고 지역주의 강화에 따른 체계적 야당 성장을 저해하였다. 2005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바키예프 정권은 톨립혁명의 의도가 된 의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 권력분산을 통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는 반대로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화되어 민주주의가 역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는 상반되는 장기집권의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전체주의적 특성을 들 수 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각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직면한 과제는 정권의 틀을 잡는 것이었다. 기존의 시스템을 민주적, 자본주의적 모델에 따라 재구성하고 민주적 모델의 건설을 추구하면서도 대통령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아카예프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소수 민족의 대표성을 거부하고 지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야당의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펼쳤다. 정치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보다 컸다. 의회는 정부 내각에 대해 불신임을 물을 수 없으며 대통령은 의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과 법령을 공포할 수 있는 일종의 입법권을 지녔다. 2006년 11월 3차 개헌안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정당들은 의회 의석 비율에 따라 50%의 정부 내각 구성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이양 받았으나 내각 구성에 대한 의회의 무능력 및 의회 해산이라는 협박으로 인해 그 해 12월 대통령에게 다시 내각 성립 권한이 이양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선거, 국민투표 그리고 형식적 정책이 사용되었다. 1994년에서 2003년 동안 일련의 국민 투표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국민들의 올바른 시국 현황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현혹시키는 정부의 형태를 띠었다. 또한 다양한 축제와 기념일 ‘마나스-1000, 오쉬-3000,-2200년의 국가, 키르기스스탄’과 국정운영의 기치로 ‘산의 해’, ‘여성의 해’, ‘공정한 운영의 해’ 등과 같은 형식적인 것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행사들이 시작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될수록 어떠한 의식이 없는 그냥 보고서 작성과 불거리들로만 전략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사의 예산은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로부터 큰 세금을 과징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끌어 모았는데 이 모금 또한 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하루 임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으로 소수의 경제적 이익의 향유를 위해 통제적인 경제 정책을 사용하였는데, 국가 전반의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한 것은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산업과 금융기관의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접근성이 용이하였다. 상부 엘리트들은 이러한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계혁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성은 저하되고 국민들의 불만은 누적되었다.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강압적인 방법들을 시행하였는데 바로 무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한 것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중요 비즈니스는 대통령에 의해 통제받았다. 아카예프 대통령의 딸인 베르멧 아카예바와 그의 남편은 건설 자재, 술, 오일 비즈니스 등을 순위 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공항, 통신, 금광업 등 경제적 이익이 되는 곳이면 바로 자신의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측근을 배치하여 통제하였다.

세 번째, 무력적 특성이다. 다양한 형태의 무력 집단이 등장하였는데 국가에 의한 공권력의 유지와 국방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핵심 권력과 결부된 사적인 무력 조직의 존재는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사회적 기반이 약하여 국방력과 경찰 권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범죄, 무력 집단이 등장하여 합법적인 비즈니스에서 종사하였다. 이들은 아카예프 정권의 구성원들과 매우 강력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통령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재력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적이고 합법적인 무력세력을 소유하였다. 이후 정권에선 또 다른 무력 세력이 등장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각 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 후보를 지지하였고 정치세력과의 깊은 연관은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을 보호하였다.

네 번째, 캐서린 콜린즈(Kethleen Collins)가 '비공식적인 사회조직으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혈연관계의 폭넓은 관계로 이루어진 신분 네트워크'라고 정의한 씨족주의이다. 이는 국가 형성 과정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1924년 스탈린이 민족정책의 일환으로 각 민족의 국경선을 확정하고, 각 민족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개혁은 현대적 민족국가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실패하였고, 자신들이 소비에트에 의해 형성된 국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이 속한 혈연 및 씨족 관계에 더 익숙하게 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절, 중앙정부는 키르기스스탄의 우수발리예프 같은 혈연 및 씨족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통치한 반면 고르바초프는 집권 후 모두 실각하고, 중앙에서 파견한 엘리트로 대신하여 폭동 야기시켜 다시 혈연-씨족 대표 지도자들이 권력을 쥐게 되었다. 독립 후, 지배적 민족집단에 근거한 민족국가 건설, 새로운 국기, 국가, 문장의 제정을 통해 통일된 국가의 모습 재건코자 새로운 국가 기념일과 종교 기념일 등 제정, 다수 씨족 언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정치적 지배 권력을 국가의 특정 혈연 집단에 기반한 특정 소수에게 집중된 것이고, 대통령은 이런 권력 피라미드의 최상위점 위치하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혈족에 기반을 둔 남부와 북부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는데, 이러한 지역주의적 전통은 권력 불균형과 관련한 인식을 형성하도록 명확히 하게 하였다. 키르기스 민족은 오래전부터 국가를 남북으로 나눈 산맥의 양 측면에 정착하였는데 산악지형적 특성인 한정적인 접촉은 지역색을 강화시켰고, 주요 계곡지역 문화권인 페르가나, 탈라스, 추이, 이식쿨 그리고 나린은 문화, 언어, 의상, 음식, 심지어 정치 사회적 가치관까지 발전되었다.

그림 4.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따른 씨족 구분



Left wing은 키르기스 북/서 지방으로 7개 부족으로 구성되며 Right wing은 1개의 부족(the Adygine)만 존재한다. 소비에트 시절부터 북부와 남부 출신들이 번갈아 요직을 맡아 오며 따라 두 지방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소비에트 시절의 불균등한 정치 경제적 자원의 배분은 북

부와 남부지방을 경쟁의 위치로 만들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측면의 첫 번째는 NGO이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정부 구조 영역을 벗어난 사회 안에서의 비공식적, 자율성 있는 사회 운동인데, NGO는 정부와 민간 활동 혹은 대안적인 정치 운동을 감시하는 기능,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부문이다. 키르기스스탄의 NGO는, 정부의 NGO단체 활동 제한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재정력으로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현재 키르기스NGO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며 국제 자원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키르기스스탄 지역 내의 지지기반과 기부자가 부재하게 된다. 두 번째 요소는 언론으로 ‘표현의 자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언론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의 언론은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다소 억압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혁명 이전 아카예프 대통령 정권에서 독립 언론의 환경이 악화되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정부 성향의 신문 탄압하였는데, 주로 법적 정당성을 이유로 많은 간섭을 받고, 관련자들 투옥되었다. 혁명 이전인 2000년대 초 Respublica 신문 편집장이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투옥, 일정기간 신문발간의 중단되었고 러시아어로 발간되는 독립 언론 Delo No는 2000년 대선 동안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가안보부에 의해 고소되었다. 또한 가장 인기 있었던 Asaba 신문은 국가에 대한 허위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벌금을 물며 결국 2001년 3월 폐간되었다. Moya Stolitsa 편집장은 공무원의 명예모독과 도덕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고 2003년 6월 신문 폐간되었다.

V 결론

키르기스스탄에 일어난 툴립혁명을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에서 이루어낸 “온건한 혁명”과 비교하여 민주화 운동으로 말한다. 하지만 소수의 키르기스스탄 학자들 견해는 달리 해석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기보다는 반대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난 5월의 사건을 정치적 변혁 및 한 일족의 권력이 다른 일족으로 넘어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민주화 열풍은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새롭게 민주 세력이 들어섰지만 기존 체제의 붕괴를 무작정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민주혁명의 시작과 끝은 매번 새로운 탄생의 정권이 시간의 흐름으로 민주혁명을 또 다른 독재체제의 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주도한 혁명세력은 정작 뒷전으로 밀리고 구정부의 기성 정치세력이 여전히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과도 대통령(오티바예바)의 임기가 2011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11년 10월 30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혁명세력인 사회민주당의 아탐바예프 vs 아타주르트(조국)당의 타쉬예프와 부툼 키르기스스탄당의 마두마로프 후보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것은 북부와 수도권지역의 아탐바예프에 대한 지지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아타 주르트, 부툼 키르기스스탄이 기반을 둔 남부지역의 저조한 투표율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혁명 후 초대 내각의 총리였던 아탐바예프가 당선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요소가 도입된 정치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 프레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 색깔 없다. 그러기에 정당들 또한 강한 사회적 기반이 부재한 상태이다. 정치적 이슈 또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이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정치적 시각에 의존하는 경향 다분하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국민들과 정치 또한 과거의 전통과 관습인 혈연, 지연, 학연, 인종 및 친족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행위의 반복은 정치적 허약함과 무능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European Forum for Democracy and Solidarity. "Kyrgyzstan"(2013)
- S. Frederik Starr. "Clans, Authoritarian Rulers and Parliaments in Central Asia" 『Central Asia
Caucasus Institute Silk Road Paper』 (2006)
- International Crisis Group. "Political Transition in Kirgizstan : Problems and Prospects" 『Crisis
Group Asia Report』 No..81 (2004)
- Кудавиев З. И. "Кыргызстан в цифрах", Бишкек. (2004)
- 외교통상부. 『키르기스스탄 개황』
- 한국무역보험공사. "키르기스스탄 정치, 경제 동향"(2013.7)
- 강봉구. "세계로부터 천산(天山)으로: 키르기스스탄 대외정책 정향의 변화" 『슬라브학보』 . 제
25권 1호. (2009)
- 강봉구.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제도 선택". 『제2차 중앙아시
아 국내학술대회』 (2010)
- 양정훈. "키르기스스탄의 국민혁명 -바키예프 정권 전,후의 정치변동-" 『한국 시베리아연구』 .
제 15권 2호. (2011)
- 주진홍(KIEP). "키르기스스탄 총선에 따른 연립정권 구서어 결과와 향후 전망"(2010)
- 박지원.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주요 정책운용방안"(2013)
- 박지원.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성장 전략"(2013)

인터넷 사이트 및 기사

<http://www.europeanforum.net/>

<http://kyrgyzstan.carnegieendowment.org/2010/11/new-kyrgyz-parliament-represents-fraction-of-the-electorate/> (검색일 : 2013.10.10)

CONSTITUTION OF THE KYRGYZ REPUBLIC